오픈소스라는 아이디어는 컴퓨터의 시작과 함께한다.

당시 소프트웨어는 자유롭게 사람들 사이에서 배포되고 있었다.

그 시기 프로그래밍은 해커와 연구자들에 의해 발전되고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이 점점 커짐에 따라 IT 기업들이 생겨나고 점점

영리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다.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가진 기업들의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복제는 아주 큰 문제였다.

그래서 초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할 수 없게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사용해 법적으로 보호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업들과는 달리

해커와 연구자들은 소프트웨어의 무료 배포를 주장했다.

빌 게이츠는 해커들과 컴퓨터를 취미로 하던 사람들의 모임인

'홈브루 컴퓨트 클럽'의 1976년 1월 31일 자 뉴스레터에 공개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OpenLetter to Hobbyists"라는 제목으로

'당신들 대부분은 소프트웨어를 훔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제작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은 과연 공정한가? ' 와 같은 문구를 실었다.

이 후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 인지하게 되고 상업용 소프트웨어 시대는 시작된다.

// 이 편지는 모든 코드를 비공개 형태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 (확실한가?)

하지만 이에 반대하던 해커들 중 한 명인 리처드 스톨먼은 소프트웨어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뜻을 담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주도한다.

그가 창조한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읽을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재배포할 수 있는 의미로 free(자유)를 사용했다.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항한 자유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를 설립했고, 유닉스 운영체제의 무료 버전을 만들기 위해 GNU is Not a Unix(GNU)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또 1989년에는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수정 및 배포할 수 있게 하는

최초의 오픈소스 라이센스 CNU General Public License를 배포한다.

1991년 Linus Torvalds는 '리눅스'라고 이름지은 운영체제 커널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커널은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 매우 유용한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컴포넌트들과 병합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리눅스 커널을 'GNU', 전체결합은 'Linux'라 불렀다(제외해도 상관엑스)

리눅스 공동체에서 여러 조직들은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다르게 조합했다.

각 조합은 '배포판'이라 부르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배포판으로는 'Red Hat', 'Mandrake', 'SuSE','Caldera', 'Corel', 'Debian'이 있다.

1998년 웹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하며 다른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가 있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무료로 얹어 팔기 시작했고, 넷스케이프는 첫 브라우저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1998년 2월 3일 자유 소프트웨어 리더와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넷스케이프 웹브라우저의 원시 소스코드를 어떤 형태로 공개할까하는 전략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오픈소스'란 용어가 새롭게 붙여졌다.

오픈소스란 용어를 만든 피터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용어의 도입은 신규유입자와 사업가에게 더 잘 이해되도록

하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의도된 노력이었다"라며 "더 넓은 사용자 커뮤니티로 확산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 후 넷스케이프는 소스 코드와 프로그래밍 방법을 개발자들에게 공개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모질라(Mozilla)였다. (정보 추가로 필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오픈 소스로 개발되고 있다.

심지어 오픈 소스를 비난하던 영리 기업들도 오픈 소스를 도입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지원하고, 자사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와 연동하며 일부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스화 했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영리 기업들이 많은 연구개발비를 들여서도 만들지 못한 혁신을 오픈소스가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오픈소스는 대세가 되었다.